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97년도 교구개편 확정

27개 교구에서 19개 교구로 교구당 500세대 전후, 청년교구 신설

교회는 현행 교구(대교구 13개, 소교구 27개)제도를 1997년부터 19개 교구로 개편하는 일을 확정했다.

현행 교구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여 교구를 개편하게 된 것이다.

우선 그동안 대교구의 구조가 많게는 1000세대에서 적게는 500세대로 분류되어 교구간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교구 교역자의 과중한 부담과 27개 소교구로 세분화되어 이에 따른 전도회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 적절한 인력이 모자라는 점, 대교구와 소교구의 행정적 통일이 없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어려움을 겪는 점, 1대교구, 2소교구를 1명의 목사와 2명의 여전도사가 담당하여 교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보다 원활한 목회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 교구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 개편된 교구는 17개의 지역 교구와 국제교구, 신설된 청년교구 등으로 총 19개 교구로 재편되었다. 그동안 행정단위로 구분된 교구를 교회를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나누고 실제 생활 거주지의 편의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었으며 한 교구에 1명의 목사와 1명의 전도사가 담당토록 했다. 또한 교구당 400~500세대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교구 개편의 특징은 청년교구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거나 가족 중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미혼의 대학생, 청년들을 대

상으로 한 교구를 말한다. 학생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며 늘 변동 가능성이 많은데다가 평소에 만날 수가 없고 한번 이사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구에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교구를 만들어 단독세대의 미혼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교구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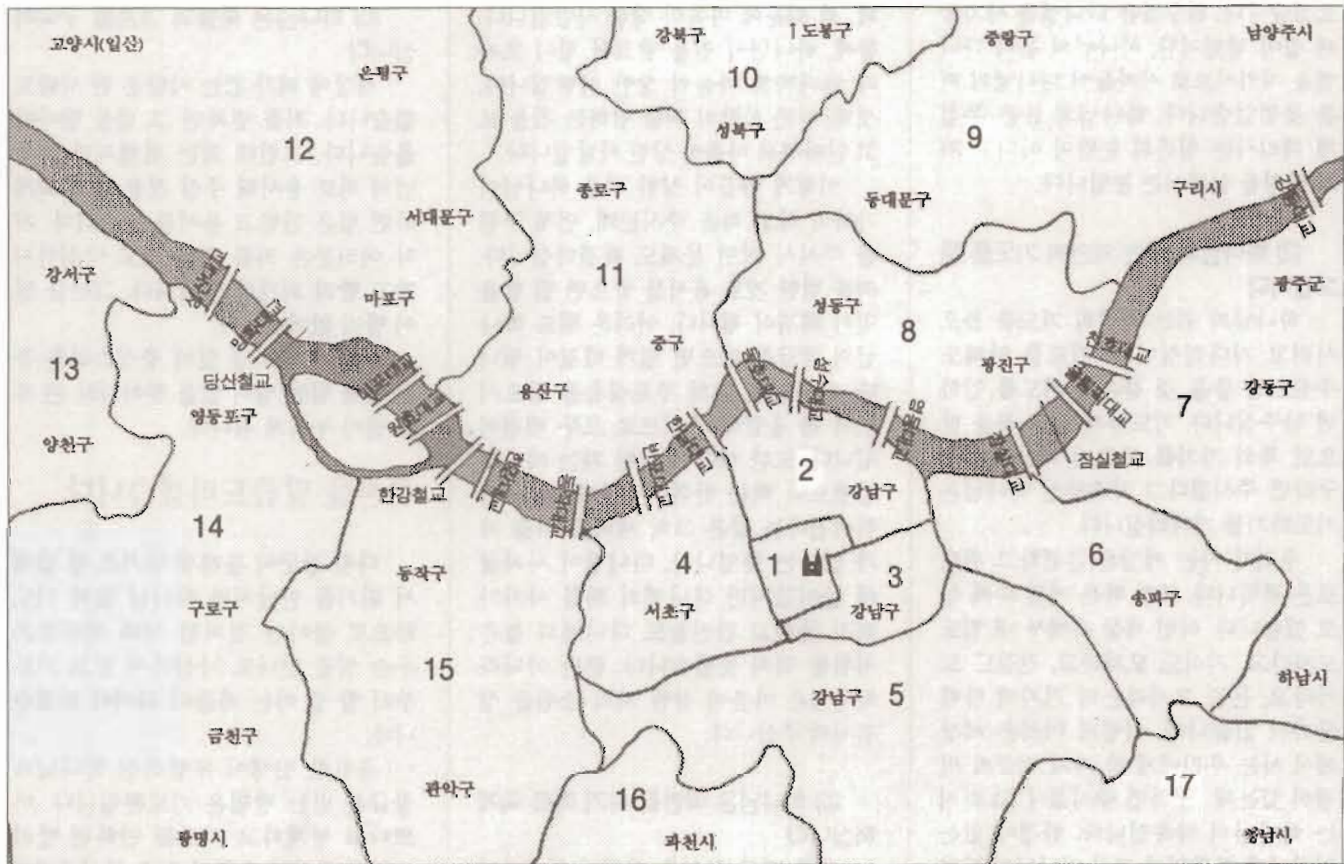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하여 교구 개편을 했지만 교구 개편 때마다 이쪽, 저쪽 교구로 이동해야 하는 교구 구분의 경계선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교구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11월 정기당회에서 1997년도 교구 담당 교역자와 교구장들이 결정되면 개편 교구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조직, 전도회 총회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이다. 개편된 교구의 구역과 지도상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교구 지역

- 1 강남구<역삼1동, 역삼2동(한서지역)>
- 2 강남구<논현동, 삼성동,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 3 강남구<역삼2동(개나리, 영동, 진달래지역), 도곡동, 대치동>
- 4 서초구<서초동,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
- 5 강남구<개포동, 포이동, 일원동, 수서동 등>,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등>
- 6 송파구<송파동, 오륜동, 신천동을 제외한 지역>
- 7 송파구<송파동, 오륜동, 신천동>, 강동구, 하남시, 광주군
- 8 성동구, 광진구
- 9 노원구<상계동 제외>,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 10 성북구, 노원구<상계동>, 도봉구, 강북구, 외정부, 동두천
- 11 중구, 용산구, 종로구
- 12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고양시<일산>
- 13 강서구, 양천구<신월동, 신정동>, 인천시, 부천시, 김포, 시흥시
- 1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목동>, 광명시
- 15 관악구, 동작구
- 16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안산시, 천안시, 평택 등
- 17 성남시<분당>, 용인<판교>
- 18 국제교구
- 19 청년교구

1. 대학생 / 가정 및 캠퍼스 사역
2. 청년 / 가정 및 직장 사역
3. 청년 / 가정 및 직장 사역
4. 청년 / 가정 및 직장 사역



10월 23일(수) 1부예배후

‘성경적 건강관리법’ 특강

강사에 재미교포 김정수 집사

재미교포 김정수 집사(68세, 미국 산호세 영락교회 출석)의 ‘성경적 건강관리법’에 관한 특강이 10월 23일(수) 1부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김정수 집사는 매년 고국을 방문해 ‘건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정수 집사는 그의 부친과 조카의

죽음을 보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100여권의 건강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건강세미나에 참석하여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연구하면서 체계화시켜 ‘성경적 건강관리법’을 만들었다. 김정수씨는 봄, 가을 한달 가량 국내에 머물며 각 단체 및 교회,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건강법을 강의하고 있다.

금주 주부교양강좌

10월 24일(목) 오전 10 ~ 12시, 총현복지관

‘스트레스 우울증’ — 이근덕 박사

금주의 주부교양강좌는 이근덕 신경정신과 원장이며 순천향대, 한양대, 경희대 신경정신과 외래교수인 이근덕 박사의 ‘스트레스 우울증’에 관한 강의가 있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못찾고 해매는 현대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우울증의 예방 및 치유법 등을 강의하게 된다.



총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을 면한 자의 찬송과 교훈(2)

(시편 34:11-22)

3. 환난을 면한 자의 교훈이 어떠합니까(34:11-14)

(1) 입을 조심하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조심을 할 줄 모르면 복을 못받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말조심을 하여야 존경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을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네 말로 너를 의롭다 하고 네 말로 너를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한 번 입 밖으로 내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에는 상급과 형벌의 책임이 있습니다. 땅 위의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헐뜯는 말이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선전하는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며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2) 악한 행동을 버리라

악이 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받습니다. 악한 행동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정상 어려워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키워주고,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선한 일은 손해가 나고 힘이 들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3) 화목하라

화목이란 화목을 찾아서 힘을 쓰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화목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화목을 깨뜨립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면서 화목을 깨뜨립니다. 교만이 없는 겸손, 욕심이 없는 청렴한 마음을 품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줄 알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34:15-22)

(1)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보십니다. 땅 위의 많은 사람들은 권세있는 사람을 우러러 보고 돈 많은 사람을 쳐다보고 인물이 잘 생긴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그 눈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 성령을 힘입어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면서 의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

은 결심만으로는 안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기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 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회개를 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힘을 안주십니다. 이와같이 의를 지키는 의인이 있고 나아가 더 귀한 의인은 의를 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영광을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의 남은 백성을 돌보아 주세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잘 됐지만 아직도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동편 창문을 열어 놓고 자나 깨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놓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의를 심은 것입니다. 꽃을 심으려고 해도 땅이 나고 곡식을 심으려고 해도 땅이 나는데 의를 심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를 심을 때 하나님의 눈이 다니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었지만, 하나님의 눈이 다니엘을 지키시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의 뼈를 못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무섭게 때리시는 심판의 눈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눈입니다.

(2)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안해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를 안하면 안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하고 위태로운 곳입니다. 또한 빠른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 힘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방해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정이 있는 인생에게 한정없이 크신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단번에 일이 됩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3)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공의로우신 얼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비밀리에 의논하고 아무도 안보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의 귀가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듯한 자들이 자기 세력을 믿고 못된 일을 할 때에 그 자취를 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4)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맡고서 힘이 모자라 안타까워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복을 주시는데, 먼저 구원을 주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죄를 범한 것도 용서를 받으면 벌 받을 일이 해결이 됩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곧 응답해 주시므로 모두 해결이 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은 상했으나 뼈는 안 꺾어집니다. 뼈가 안 꺾어진다는 말은 그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뼈를 사자가 꺾지 못했고 간신들도 다니엘의 높은 지위를 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5) 하나님은 악인을 자기 죄로 죽게 하십니다

죄를 범한 악인을 의인이 잡아다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범한 죄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충신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신의 마음은 편안하고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죄없는 다윗을 아홉 번이나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블레셋은 장군이 없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울 왕은 사랑하는 세 아들이 눈 앞에서 죽는 꼴을 당하고 결국 자신은 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후 시체까지 천대를 받아 목이 잘리워 헬산 성벽에 매달

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상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한 일로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 하나님은 중들의 영혼을 구속하십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벌을 받아야 올습니다. 그런데 죄는 범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면 벌은 안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것도 낙심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만큼 벌이 빨리 없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은 벌을 받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장군이 블레셋 아가스 왕 앞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부터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바쁘다고 핑계하고 기도를 안하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려서 천천히 간 것만도 못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의 귀가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지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영육간에 모자람이 없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부모기도회를 하면서

한 군수

(목사, 고등부, 출판부 지도)

예수님은 "...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고 하셨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이다. 믿음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도없는 믿음은 믿음을 시들게 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며,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말들을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열심이나 땀흘림, 열정 또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 목청을 돋우어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인가 이루어낸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반대로 소리가

작거나 눈물도 없이 차분하게 기도를 하면 웬지 마음이 뜨겁지 않다 하여 기도를 시원찮게 한듯한 생각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이같은 외적인 노력이나 땀흘림에 기인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응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믿음은 큰 산까지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게 할 정도의 기도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볼 때 매년 이맘 때만 되면 열리는 학부모기도회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참으로 공허하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며 마음을 쏟는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같은 기도는 공기만을 진동시킬 뿐이다.

이제 자녀들의 중대사인 입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의 중대한 결승점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루어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자녀는 수험생이 아닐지라도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짐을 나누어주어야만 한다. 기도할 때 하늘의 새 힘을 얻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엮어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것은 없다.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그 일을 막을 것이며, 누가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때때로 우리는 학부모기도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심을 알고 있다. 물론 그분들의 눈으로는 학부모기도회가 복을 비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형은 어찌하든지 이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어 주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비록 기복신앙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려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그것이 전부 아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형식일 뿐 우리는 학부모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으랴!

학부모기도회는 우리 모두의 기도회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쏠려 있는 기도회이다. 따라서 함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 드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매일같이 베다니홀에 많은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제2회 외국인근로자 초청

전도집회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로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식사 및 선물 증정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전도 차원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에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주로 겨울 옷가지나 기타 생활에 요긴한 생활 필수품(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일체, 각종 세제류 및 휴지, 각종 식용 통조림 등)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11월 10일(주일)까지 영어예배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996년 11월 17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 이승림 목사(552-8200)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자

장 호 응

(타고 원로장로, 2-1교구)

한 글은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배요 자랑이다.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어느 나라 말든지 그대로 발음을 옮길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도대체 우리 말은 어디로 갔나 하고 의구심이 생기곤 한다. '하트호프치킨', '파라다이스 호텔', '베스토아' ... 이렇게 길거리의 거의 모든 간판이 우리 말로 된 것이 없다. 그러니 도무지 저 간판을 붙여놓은 곳이 무엇을 하는 가게인지도 알 수 없다. 어쩌다 은행 간판을 만나야 겨우 여기가 한국임을 알 수 있는 글자를 볼 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간판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TV)을 켜면 '뉴스라인', '뉴스네트워크', '뉴스데스크' 등 굴곡잡직한 뉴스 프로그램이 거의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의 제목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무분별적으로 외국의 용어를 따라하는 것 같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점차로 영어를 국문으로 표기한 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처럼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자동차스

파트'나 '몽타쥬 배포'나,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신문 읽기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외국어를 한글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이름이나 국제 단체, 사건 등은 어차피 외국어를 그대로 음차(音借)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달아, 'UN(국제연합)'과 같은 식으로 표기해 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신 다른 외국어는 우리 말로 옮겨서 사용해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말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반면, 한자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비록 한글 전용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한자를 완전히 표기에서 없애게 되면 의미 이해를 어렵게 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씨를 표기할 때 '유(劉)'씨인지 '유(兪)'씨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자 표기를 병기해야 한다. 또 음은 같으나 의미는 다른 많은 글자들이 있다. '실업(失業)'인지 '실업(實業)'인지, '3패(敗)'인지 '3패(霸)'인지, '유감(有感)'

인지 '유감(遺憾)'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의 한자 표기를 달아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한자로만 표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한자에는 한글 발음이 있으므로 이를 표기하되 의미 분별을 위해서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주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취지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은 가장 쉽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외국어 사용을 억제하고 한글을 전용하되, 의미 전달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한다든지, 외국어의 뜻을 함께 써준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합리적인 소통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27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3시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현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 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 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 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

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었지만 현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현혈에 동참하자.

· 현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 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토막소식

▶ 청년2부에서는 오는 10월 27일(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김광채 교수(개혁신학원 역사학 교수)의 '종교개혁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특강이 있다. 한편 특강 후에는 제3차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면려회 임원단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부, 초청전도집회 10월 27일(주일)

교회학교 초등1~6부는 10월 27일 초등부 전 교회학교의 초청전도집회를 실시키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3부에 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못 오는 경우가 있어 초등부에서는 초등부 2부예배(오전 11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96 제8교구 가을잔치

제8교구에서는 오늘(10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96 가을 잔치를 실시한다. 그동안 8교구에서는 가족 중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장기결석자, 태신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예수 사랑을 전하게 된다.

▶ 사랑의집짓기 운동본부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 기간은 1997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로 장소는 필리핀 5개지역, 비용은 70여만이 필요하다.

노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랑의집짓기 운동본부(전화 261-3702)나 대학부 간사인 임영호 형제(015-298-1519)에게 연락하면 된다.

제20회 정신지체인 전국 축구대회 참가

충현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 8일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정신지체인 전국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축구대회 참가는 정신지체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전국 축구대회를 통해 참여 의식과 경쟁력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안타깝게도 첫 경기에서 4대2로 지고 말았지만 축구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참가하는 것과 준비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처음 참가한 정신지체인 축구대회를 끝내며,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그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열심히 땀 흘린 복지관 훈련생들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중등1~3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중등1~3부는 10월 26일(토) 연합으로 '96 시와 찬양의 밤 행사를 갖는다. 당일 오후 3시부터 교육관 1층에서 시화전을 열고, 이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갈릴리홀에서 찬양의 밤 행사를 갖는다.

당일 찬양의 밤 시간에는 시 낭송, 독창, 중창, 독주, 성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중등1~3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친구들을 초청해 함께 올 수도 있다.

◀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



아! 이스라엘... 애굽이여

동지현
(집사, 선교위 실행위원)

감 사위원장인 박승준 장로님과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준비하면서 고대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함께 다녀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허락해 주신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선교위원장 노광현 장로님께서 실행위원들도 선교지 현장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기회에 실현되었다.

이스라엘행을 결정하기 전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이스라엘에 굳이 성지연구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세워져도 과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아심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를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결론이었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이 그 필요를 느껴서 동의할 때 우리가 떠나되어 함께 기도도 물질로 후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팀은 한달 남짓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분임토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함께 부를 찬양과 인사별, 선교에 관한 비디오 관람, 성경적으로 관찰한 이스라엘 지리, 공동체 훈련 등을 받으며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라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히 오셔서 거니시며 사역하시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곳, 이스라엘을 동경하지 않으랴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기 원하는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의 방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느끼며 그 기대가 점차 커져갔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시킨 구약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편 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모세를 택한 곳에서부터 홍해를 거쳐 시내산을 오르며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어 있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잠주경 선교사님이 계신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 이준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면적:	이스라엘(동부에루살렘 포함)	20,700km ²
	웨스트뱅크(유대와 사마리아)	5,880km ²
	가자지구	363km ²
	골란고원	1,295km ²
	총면적	28,251km ² 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의 나라이다.

인구 및 인종: 인구는 95년 통계로 5,438,000명. 전세계 102개국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이 82%, 아랍인이 16%, 기타 드루즈인과 애굽인, 사마리아인 등이 있다.

종교: 유대교가 80%이고 그중 4-5%는 정통 유대인으로 반드시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다닌다. 그들의 종교적 습관은 기도할 때 꼭 소울을 쓰고 한다는 것과 그들의 기도책에 1일 3회에 기도 내용이 1년분이 적혀 있다. 회교 14.5%, 기독교 2.34%, 그 중 개신교는 0.21%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역 선교사는 1,000명에 가깝다.

수도: 수도이며 성자인 예루살렘(544,000명)은 과거의 성스러움과 그 역사가 남아 있어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과 함께 순례자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정치: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1900년에 걸친 망명생활은 끝이 났다. 주변국들과의 다섯 차례의 전쟁과 1991년 걸프전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고 지금의 영토들도 많은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다.

경제: GNP가 15,000달러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에게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수출품은 다이아몬드와 사해의 자원을, 그리고 무기와 농산물 등이다. 화해는 성경에 나온 대로 세겔을 쓴다(3세겔 = 1달러). 물가가 비싸고 땅은 거의 국가 소유이며 임대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 황무지를 개간한 나라답게 나무, 식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꾼다.

자연환경: 해변에 펼쳐지는 깨끗한 모래밭과 눈부신 태양, 맑은 공기와 근대 신중도사들과 호텔들, 키트츠 농장, 휴양지, 또한 눈썹인 산과 거친 벌판, 숲과 사막이 나타나 작게만 큰 나라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